

전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고도화 등 동부권 발전전략 제시

전라남도는 24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2025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석유화학·철강산업 AI 기반 고도화, K-우주항공·방산 혁신벨트 조성 등 동부권 발전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정기총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주순선 동부지역본부장, 동부권 7개 시군(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 자문위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도정 발전에 기여한 자문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김영록 지사가 동부권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참석 위원들은 연말 일정에서도 높은 참여 열의를 보이며 동부권 대도약에 대한 공감과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시상식에서는 지역사회 소통과 도정 발전에 힘쓴 남정우(여수), 정재용(순천), 이철(광양), 이일규(곡성), 안현진(구례), 김영석(고흥), 박연희(보성) 위원 등 7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어 진행된 도정 설명에서 김영록 지사와 위원들은 전남 동부권의 미래를 견인할 7대 주요 전략의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AI 기반 고도화와 이차전지·수소 등 고부가 첨단소재 중심의 여수·광양만권 테크노밸리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강점을 살린 주민 참여형 해상풍력 등 청정 에너지 허브 구축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발사체와 첨단소재가 융합된 K-우주항

도정자문협서 K-우주항공·방산 혁신벨트 등 7대 로드맵 공유

김영록 전남지사 “현장 지혜 더해 지역 발전 속도감 있게 추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전남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방산 혁신벨트 조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고부가 농수산 선도모델 육성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등 초대형 국제행사 유치 ▲지리산·섬진강·다도해를 잇는 웰니스·해양 관광벨트 구축 ▲대한민국 전역을 연결하는 사

통팔달 초광역 SOC 확충 등이다. 참석자들은 동부권 지도를 새로 그릴 미래 청사진과 구체적 로드맵에 깊이 공감하며, 동부권 대도약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동부권 발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위원들의 지혜가 더해질 때 변화가 현실이 되는 만큼 동반자로서 함께 달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도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제안된 고견을 동부권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선호 기자

전남도, 첨단 농업 이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본격화

관계기관 협의회사 식품소재·천연물·미생물 전략 논의

전라남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지난 23일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열고 전남 농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 전남농업기술원, 순천시·나주시·곡성군·장흥군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담당 과장, 목포대·순천대·전남대 교수진, 전남바이오진흥원과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분야별 추진 전략을 비롯해 기반 인프라 구축, 도내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자·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산업 육성 전략 전반을 논의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후방 산업 전반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이다. 전남에서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흑하랑 상추 건강차, 눈피로 개선에 활용되는 차즈기 제품, 실외 개선에 활용되는 차즈기 제품, 유아 부산물에서 추출한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한 우수 사례가 성과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그린바

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지방 정부 중심의 전 주기 지원 모델로 전환하는 등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모델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나누는 식품소재, 장흥은 천연물, 순천과 곡성은 미생물을 핵심 축으로 삼아 시군과 협력하고,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표준화된 스마트팜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고 소득을 높이며, 기업은 안정적 원료 공급망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력 양성도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담당할 그린바이오 벤처캐피탈 조성을 위해 국비 161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전남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출발점으로 벤처캐피탈과 통합기업지원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지역 인재 양성부터 벤처·스타트업 발굴, 기술개발·실증·사업화·시유자 부산물에서 추출한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한 우수 사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신영길 기자

광양경자청,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투자간담회

광양만권 중화권기업 투자사례 소개 및 투자의향기업 밀착상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근, 이하 광양경자청)은 12월 24일 서울 열매서터 풀만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원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의 투자환경과 투자사례를 소개하고 투자 의향기업 밀착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한중국상공회의소는 225개 회원사로 구성된 경제단체로, 화웨이·BYD·중국은행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 전남분회를 설립했으며, 이번 행사에

킴푸스, 에이치에이엠 등 전남분회 7개 회원사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날 투자간담회는 주한중국상공회의소 2025년 연말총회와 연계하여 총회 개최 전 특별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광양만권 홍보영상 방영, 투자사례와 산업단지 소개, 질의응답 및 밀착상담 순으로 진행되었다.

스위츠창 집행회장은 “광양만권은 항만과 산업단지가 집적된 한국의 대표 산업거점으로서, 회원사들이 광양만권을 이해하는 계



기와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업기회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경자청장 관계자는 “광양만권은 한국 내 중국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오늘 광양만권에 투자한 중화권기업

들의 성공사례와 전남분회 회원사들이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투자경험을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투자 성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 농식품산업, 전통식품·농촌융복합 분야 전국 최고

김치포평회 대상·식품명인 배출·농촌융복합 우수사례 선정

전남 농식품산업이 전통식품과 농촌융복합 분야에서 잇따른 수상 성과를 거두며,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과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라남도에도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 주최한 국내 최고 권위의 김치 평가대회인 ‘대한민국 김치포평회’에서 장성의 ㈜새벽팍이 전체 대상을 받았다. 전통 발효기술과 철저한 품질 관리 역량을 인정받으며 전남 김치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대한민국식품명인 배출도 이어졌다. 지난 2024년 담양 조성에 대표가 쌀조청 제조기술로 명인에 오른 데 이어, 올해는 보성 김영민 대표가 전통 도라지식초 제조기술로 대한민국식품명인에 신규 지정됐다. 남도 전통식품 제조기술의 계승 가치와 산업적 가능성이 연속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전국대회 수상과 명인 배출은 남도 전통식품의 기술력과 계승 가치가 전국적으

로 인정받은 셈이다. 전남도가 추진한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과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등 현장 중심 지원정책의 결실로 평가된다.

전통식품 산업의 성과는 농촌융복합산업 분야로도 확산했다. 농촌융복합산업(농업(1차),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 산업을 연계해 농촌 자원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올해 농식품부가 주관한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보성의 ㈜보림제도가 대상을 받았으며,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고흥의 ㈜담우가 선정됐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통식품과 농촌융복합산업 부문에서 주요 대상을 차지한 배경에는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통식품과 융복합 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전남 농촌이 활력 있는 산업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신정팔 기자

전라남도는 올해 203억 원을 들여 여성농어업인 10만 1천700여 명에게 지급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연말까지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여성농어업인에게 20만 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해 영화, 서점, 미용,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업종에서 문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1일까지 사용하세요

영화·서점·미용·스포츠 등 문화생활... 미사용시 자동 소멸

화생활을 즐기도록 한 사업이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 등), 의료업종(병원·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을 20~75세에서 20~80세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오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이나 전환이 불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이용 방법과 사용처를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한 여성농어업인이 없도록 사용 실적을 점검하고, 이장회의, 문자 발송,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포인트 잔액과 사용처를 안내하고 홍보했다. /임재철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